



덧개를 뗀다 붙였다... 가방 디자인 '내맘대로'

'눈에 띄는 디자인 가방에 매력을 느끼면 서도 정작 계산대로 가져가는 건 왜 무난한 가방일까' 최지수 엘씨벤처스 대표가 가방을 살 때마다 든 생각이다. 여러 가지 옷에 두루 어울리려면 평범한 디자인이 더 낫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남들과 비슷한 가방보다는 특이한 가방도 갖고 싶다는 생각이 한편에 자리잡았다. 주머니 사정이 넉넉하다면 둘 다 사겠지만 대부분 직장인에게엔 엄두가 나지 않는 일이다.

해결책은 없을까. 가방 디자인을 적은 금액으로 쉽게 바꿀 수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최 대표가 가방 덧개를 떼었다 붙여 디자인을 바꾸는 러브참 가방을 개발한 배경이다.

◆ 덧개 지퍼로 디자인 변경
디자인을 변경할 수 있는 가방을 고민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다. 시중에 나온 커스터마이징 가방은 기존 디자인 가방에 스티커나 패치를 붙이는 수준이었다. 가방 표면이 손상될 수 있고 이전 상태로 복구하기도 어려웠다. 최 대표는 "기존 방식으로 가방 디자인을 변경하려면 제조업체에 가방을 맡겨야 하는 등 절차도 복잡했다"며 "이런 불편을 줄이려면 가방 디자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덧개를 소비자 직접 갈아 끼우는 게 나을 거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러브참에서 나오는 모든 가방의 뒷면에는 가방 덧개와 본체를 연결하는 지퍼가 있다. 가방 앞면 디자인을 좌우하는 덧개를 갈아 끼울 수 있는 구조다. 최 대표는 "색이 다른 가방과 덧개라도 모두 교환할 수 있도록 지퍼를 자체 개발했다"



최지수 엘씨벤처스 대표가 덧개를 교체할 수 있는 러브참 가방을 소개하고 있다. 나수지 기자

5만원짜리 덧개 달면 새 가방 변신 중국 싱가포르 캐나다 등서 인기

"디자이너와 협업해 선택폭 넓힐 것"

며 "뚝딱이 단추 등 다양한 방식을 테스트해 봤지만 지퍼가 가장 견고하면서도 간편했다"고 했다.

소비자의 다양한 취향을 만족시키도록 가방 덧개인 플랩(flap)은 30여 개, 가방 크기는 네 종류를 각각 생산하고 있다. 덧개뿐 아니다. 두께나 소재가 다른 가방 끈과 열쇠고리처럼 가방에 장식용으로 다는 참(charm)도 선택할 수 있다. 소비자가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100개 이상의 다른 디자인이 만들어지

는 셈이다.

최 대표는 "가방을 처음 구매할 때 가방 본체와 플랩 두세 개를 사는 소비자가 많다"며 "시즌별로 새로운 플랩이 나오면 기존에 구매한 가방에 붙여 디자인을 바꿀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덧개와 본체를 합한 가방 가격은 10만원 중후반. 덧개 한 개는 4만~5만원 선이다.

◆일상에서 영감 얻은 특별한 디자인
러브참 가방은 독특한 디자인 제품이 많다. 빨갭머리 같은 털 장식에 눈이 달린 가방, 넥타이를 맨 셔츠 모양의 가방 등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디자인들이다. 최 대표는 "디자인을 바꿔가며 새로운 가방을 시도하려는 소비자가 주로 찾"기 때문에 과감한 디자인을 선호한다"며 "선택의 폭이 넓어지도록 두루 쓸 수

설립	2018년 5월
위치	경기 성남시 백현동
주요제품	커스터마이징 가방브랜드 러브참
특징	가방 덧개부분을 지퍼로 탈부착해 다양한 디자인으로 변형

있는 디자인, 고급스러운 가죽 소재 가방 등으로 종류를 늘려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러브참은 지난해 5월 창업해 이제 1년이 된 신생 브랜드다. 특이한 디자인과 제품 아이디어로 찾는 곳이 늘고 있다. 창업 초기부터 시제품이 나오면 각종 전시회를 돌며 적극적으로 마케팅한 덕분이다. 최 대표는 "지난해 6월부터 아트페어 등에 참가하며 적극적으로 홍보했다"며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등에서 팝업스토어를 진행했고, 현대백화점 판교점에도 입점했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외부 디자이너와 협력해 디자인 선택의 폭을 넓히고 수출도 늘려갈 생각이다. 그는 "중국 싱가포르 캐나다 등 디자이너 편입을 일부 가방을 수출하고 있다"며 "러시아 홍콩 인도네시아 등의 해외 전시에 참가해 바이어들과 접촉을 늘릴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나수지 기자 suji@hankyung.com

◆'이달의 으뜸중기 제품'은 이메일(silee@hankyung.com)로 신청받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levnet.hankyung.com)를 참조하세요.

286개 전통시장 상점가에 2130억 지원 낙후된 구도심 상권 살린다

중기부, 진주 중앙시장 등 4곳에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 진행

정부가 낙후된 구도심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전국 286개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총 2130억원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일 심의조정 위원회를 열고 올해 신규 지원 대상 전통시장·상점가 286곳을 최종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중기부는 개별 시장의 특색을 발굴하고 쇼핑 환경을 편리하게 만드는 동시에 인근 상권 전체를 종합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2130억원을 쏟아부을 계획이다. 이번 지원 사업에는 낙후된 구도심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가 포함됐다. 경남 진주 중앙시장, 광주광역시 양동시장, 경기 구리시장, 충남 천안 역전시장 등 네 곳은 지방자치단체와 상인회 주도로 쇼핑, 지역문화, 청년창업 등이 결합된 복합상권으로 조성된다. 구역당 5년간 약 80억원이 투입된다. 중기부는 2022년까지 전국 30곳의 상권을 육성할 계획이다.

'특성화시장사업' 대상은 총 84곳을 선정했다. 이 중 성과가 우수한 시장을 선별해 지역 거점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해 2년 최대 20억원을 지원하는 '지역선도형시장'으로는 충남 서천특화시장이 뽑혔다. 지역 특색을 반영해 시장 투어 코스를 개발하고 문화콘텐츠를 육성하는 등 2년간 최대 10억원을 투입하는 '문화관광형시장'에는 대구 와룡시장, 인천 부평강시장 등 22곳을 선정했다. 그동안 한번도 지원받지 못한 시장을 우선 지원하는 '특성화 첫걸음 기반조성 사업'은 서울 연서시장, 부산 부전시장 등 30곳이 포함됐다.

올해부터는 임지를 전통시장 안에서 오픈상점가 등으로 완화한 '신개념 복합형년월'이 도입된다. 부산 남문시장 등 세 곳을 신규로 조성하는 것을 포함해 청년물품 등 여덟 곳을 지원한다. 전통시장 이용객들이 가장 불편하게 느끼는 주차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올해 서울 영천시장을 포함해 16개 시도 54개 시장에 주차장 신규 건립을 지원한다. 노후 전통시장에서 화재를 막기 위해 29개 시장의 전기설비개선을 지원하고 41개 시장의 화재알림시설도 설치한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

'중소벤처기업 금융지원상' 포상 접수

내달 14일까지 신청

중소벤처기업부는 7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중소벤처기업의 금융 지원에 기여한 유공자와 기관 등을 대상으로 포상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올 11월 열리는 '제24회 중소벤처기업 금융지원상 시상식'에서는 대통령 표창과 국무총리 표창, 중기부 장관 표창, 기획재정부 장관 표창 등 80건을 수여한다. 포상자는 오는 9월 확정된다.

대상은 은행·비은행 예금취급기관·기타 금융지원기관 총사자나 기관이다. 금융 지원을 통해 중소벤처기업 성장에 기여한 '금융 지원 기여도'가 평가 기준이 된다. 이번 포상은 적극적 소통으로 기업 애로 해결을 위해 노력한 현장 유공자 발굴에 중점을 둔다.

포상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기관별 본점에 신청하고, 각 기관은 중기부에 일괄 접수하면 된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

현대L&C 가구용 필름, 글로벌 친환경 인증 획득

현대백화점그룹 계열인 현대L&C는 합판 표면 마감재인 가구용 필름 '글로벌 친환경 인증'을 유니온으로부터 'GRS 인증'을 받았다. GRS 인증은 제품 소재에 20% 이상 재활용 원료를 포함하고 생산 단계별로 재활용 원료 함량을 추적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글로벌은 제품 소재의 90%



를 차지하는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의 78% 상당을 재활용 소재로 사용했다. 이를 위해 협력사인 대양폴리머와 1년간 협업해 PET 재활용 기술을 확보했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

스탠탑비뇨의학과의원 전립선비대증 치료 당일시술가능!

◆스탠탑 발기부전 치료

- 해면 체내 자가주사요법
- 체외충격파 치료기 ED1000을 이용한 시술
- 성기동맥혈류충전기를 이용한 시술
- 골극형음경보형물 삽입수술
- 팽창형음경보형물 삽입수술

◆스탠탑 조루수술

- 배부신경차단술과 음경확대수술은 동시에 시행 가능합니다. (감각이 둔화되어 조루개선효과)

◆스탠탑 전립선 질환 치료

- 템프로를 이용한 전립선 증상 완화
- 경요도적 전립선 절제술(TURP)
- 전립선비대증(레볼릭스를 이용한 시술)
- 유로리프트를 이용한 시술 (이식형 결찰사를 이용한 전립선결찰술)

◆스탠탑 남성수술

- 음경확대수술
- 귀두확대수술
- 자가지방이식 확대수술
- 보형물 삽입수술
- 음경 재건성형수술
- 구부러진 음경(만곡증)수술

◆안전을 우선으로 생각합니다.

- 수술실 멸균 / 수술 기구의 철저한 살균소독
- 1회용 수술도구 사용 / 수술복, 수술캡, 수술도구 상시 안전점검
- 식약청 사용승인 재료 사용

◆수술 후 당일 퇴원이 가능합니다.

스탠탑비뇨의학과의원에서는 자체 검사실을 보유하고 있고, 시술 후 당일퇴원이 가능합니다.

◆당뇨병이 있어도 시술가능합니다!

고위험군의 당뇨환자를 철저히 가려내 엄격한 사전 사후 관리로 부작용을 줄이고자 합니다. 공복 시와 식후 혈당은 물론, HbA1c장비시스템을 활용 정밀 체크 및 사전조치 후 시술을 진행

◆통증이 적습니다.

스탠탑비뇨의학과의원에서는 척추마취와 마취젤리 투여를 이용하여 통증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환자의 마음을 가슴으로 공감하며, 진료에 최선을 다하는 자세, 스탠탑비뇨의학과의원 추구하는 가치입니다.

남 성 수 술 문 의 1522-7589

전립선시술문의 1522-7520

이식형 결찰사를 이용한 전립선결찰술은 전립선비대증 환자의 요도폐색 증상 개선을 목적으로 사용되며, 비교적 짧은 시간에 치료할 수 있습니다. * 수술 후 요폐, 출혈, 요실금 및 자극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의료광고 심의번호 제180327-증-83953호/ 제180511-증-84065호〉

김기문 회장 취임 2개월... '발로 뛰는 조직'으로 바뀐 中소중앙회

뉴스키페

조직개편 후 현안 직접 챙겨 한결 부드러워졌다는 평가도

'일하는 조직'으로 바뀌었다. 의사 결정도 빨라졌다. 취임 2개월이 지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사진)과 중앙회에 대한 중소기업계 평가다. 지난 3월 초 취임한 김 회장이 중앙회를 '할 말'을 하고 할 일도 하는 조직으로 바뀌었다고 있다.

김 회장은 회사(제이에스티나)에 특별한 일이 없을 경우 대부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으로 나온다. 출근 시간은 오전 8시~8시30분. 도착하자마자

국회 관련 이슈와 함께 중소기업 및 협동조합 현안을 쟁긴다. 각종 현안은 매일 'K-BIZ 편지'를 통해 협동조합 이사장에게 자세하게 전달하고 있다. 그동안 K-BIZ 편지에서 다른 주제는 최지임 금·근로시간 단축 같은 근로환경부터 산업연수생 부활 등을 통한 인력난 해결, 기업승계 이슈까지 다양하다.

일하는 조직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과감한 조직개편도 실시했다. 지난 3월 회원지원본부 이름을 협동조합본부로 바꾸고 산하에 조합지원실과 표준원기센터를 설치했다. 수출과 일자리를 늘리는 업무를 맡은 '혁신성장본부'도 새로 설치한 데 이어 지난 2일 전·현직 협동조합 이사장 40

여 명으로 이뤄진 원로자문위원회도 출범시켰다. 경륜 있고 신망받는 인사들로 구성된 협동조합과 중소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조성되고 있다.

김 회장은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 항상 업무를 앞세운다. 최근 대통령 경제 사절단으로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했을 때 동행한 한국전력 사장에게 중소기업 전기요금 인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또 해외 출장 중 다음달로 예정된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초청 대상자 선정 업무를 지휘한 것도 '업무 우선주의'라는 철학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조직 내부에선 김 회장

리더십이 한결 부드러워졌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과거에는 부하 직원에 대한 칭찬이나 격려에 인색하다는 평가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중앙회 직원들에게 격려의 말을 건네며 사기를 북돋아주고 있다는 것. 겉으로는 고집이 세 보여도 합리적인 정책에 대해서는 수용할 준비도 돼 있다는 게 중앙회 내부 평가다. 한 중앙회 직원은 "12년 '김 대리'로 중앙회에 와서 4년 전 '김 회장'으로 퇴임했다"며 "이번에는 '김 회장'으로 돌아와 현안을 즉석에서 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협동조합 이사장도 "과거에 비해 술은 조금 약해졌지만 업무에 대한 열정은 여전히 식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